

'용담호 수질을 지켜라'

진안군, 330억원 들여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진안군은 7일 늘어나는 비점오염원으로 위협받는 용담호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330억 원을 들여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전북·충청권 150만 주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유입 오염원의 10%가 점오염원인 반면 비점오염원이 90%에 달해 비점오염원 차단이 수질보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진안군은 이항로 군수 취임 이후 3NO운동(안바리고, 안태우고, 안묻고)과 우렁이 농법 등으로 오염차단을 노력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산간농촌 지역의 특성 상 영농기 농약, 퇴비, 비료, 휴탕물 등이 우기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언진, 신지천 등 2곳에 80억 원을 투자해 인공습지를 조성했으며, 국비와 지방비 330억 원을 들여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79억 원(국비 39억 원, 기금 32억 원, 군비 8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인 운산 인공습지는 인구 및 농경지가 가장 많은 진안읍 배수구역이다.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50여명 소유의 80필지 땅을 편입시켜 침강지, 얕은습지, 깊은습지, 산책로, 수변데크 등 총 면적 8만6000㎡의 인공습지와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운산 인공습지는 실시설계단계부터 최대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

술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진안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인공습지지역인 진안천 오염원이 이곳에서 1차적으로 걸러져 용담호로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정자천, 구량천 등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0%와 기금 40% 등 보조재원으로 사업비의 90%를 충당할 수 있어 군비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용담호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만전

8월 31일까지 예방활동 주력

무주군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로 물놀이 안전 전담 TF팀을 구성한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인명사고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음면과 공유하고 있으며, 관내 소방, 경찰, 자율방재단, 수난구조대, 재난구조협회, 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

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할 예정으로 담당 구역 배치 전 전문 교육을 실시해 인명구조 요령과 장비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구조수영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구명환과 구명조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매일 점검·확충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삼례 수계리 일원에 100여개 업체·800여개 일자리 창출

완주군이 삼례읍 수계리 일원 농공 단지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삼례읍 수계리 일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16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완주 농공단지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350여원을 들여 32만㎡ 규모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

며, 올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는 기존 완주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1, 2단계)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중소규모의 제조업종 유치에 목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100여개 기업체 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에 산업시설용지 20

만㎡를 조성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전기 및 가스 공기조절공급업 등 제조업종이 입주할 계획이다.

완주 농공단지는 사통발달 교통망과 갖춘 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과 완벽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이다.

황철호 전라사추진단장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은 전북 북부지역의 거점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중소규모 기업들의 공장유치 수급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별자리탐사 생태관광 운영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동안 무주 관내 미래세대 대상으로 별자리탐사 생태관광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미래세대 및 탐방객을 위한 천체의 교육학습장 조성을 모토로한 덕유산대야영장 및 옛길 복원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해 야간 별자리 탐사, 구천동 옛길 식생복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관내 교육기관 교과과정과 연

계한 덕유산대야영장 야간 별자리 탐사와 구천동 옛길 식생복원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미래세대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 윤대원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더불어 국립공원의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소득 웰빙 작물 '아이스 플랜트'에 '쑥~'

갯잎을 특화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진안군 안전면(면장 유철호)은 또 다른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화작물의 주인공은 2년 전 안전면으로 귀농한 김경석(56)씨로 현재 '아이스 플랜트'라는 웰빙 고소득 작물에 빠져 있다.

김씨는 귀농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웰빙과 고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작물을 연구하던 중 '아이스 플랜트'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나 웰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

민에게 오래지 않아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이스 플랜트'는 작은 얼음조각 같은 결정체가 물방울처럼 달려 있어 붙여진 것으로 이 투명한 결정체를 블러더 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에는 혈당조절을 돕는 이노시톨,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성분과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혈당치를 낮추는 피니톨과 중성지방을 억제하는 마이오이노시

톨을 함유하고 지방연소효과가 있는 판토텐산 등이 들어 있는 식물이다.

특히 효소로 발효하면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가바(GABA)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불안감 해소, 혈압 강하, 정신집중력 강화, 기억력 증진, 불면증 등에 탁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석씨는 "내년부터 하우스를 넓혀 면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후 연구모임, 작목반 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역사박물관 '문화유산 답사'

진안역사박물관은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향토문화유산 체험으로 '진안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교와 역사박물관 등 지역의 문화기관들이 연계하여 어린이층의 향토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되어 주목된다.

'진안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은 진안역사박물관과 진안신문·장승초등학교·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합심하여 진안 부귀면에 위치한 장승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매월 1차례씩 진행되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은 매달 다른 주제와 테마로 진안의 역사문화 관련 답사지를 선정하여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차례의 답사를 통해 진안의 선사시대 유적과 고인돌, 합미산성과 운산리 삼층석탑 등을 찾아간 바 있다.

특히 이번 답사는 4회차로, 최근 고려 초기 청자가마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발굴조사가 추진 중에 있는 진안 도룡리 중평 청자가마터 답사가 7일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참여 어린이들은 지역의 청자가마터 유적과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행사문의
전안군청 문화유산과
063-430-2951